

제 32회 기독교문학회 주제발표  
**융복합과 기독교 학문: 인문학자의 시각에서**  
(손화철,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철학)

## 들어가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지성으로 탐구하게 하신 창조세계는 애당초 하나다. 학문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것이라면, 학문 역시 하나다. 역사적으로도 학문의 분야 구별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물리학과 윤리학의 거리가 오늘과 같이 멀지 않았다. ‘융복합’이라는 말은 개별 학문분야를 상수로 전제하지만, 사실 학문은 본래 융복합적이었고 좀 더 정확히는 하나였다.

물론 학문 분야의 구분은 지성과 관심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불가피하다. 인간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또 취득한 지식들을 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도 학문 분야의 구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문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 셈이다.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개별 학문을 중심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탐구하는 것은 언제나 뚜렷한 한계에 봉착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인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시도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기독교 학문의 관점에서 융복합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융복합을 주제로 잡고는 학문 분야별로 따로 논의를 해 보라는 모순적인 요구와, 인문학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융복합의 흐름에서 약간 비켜 있다는 사실이 일정한 제약이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1. 인문학의 융복합: 동향과 개념

지난 몇 년 동안 융복합이 대세다. 융복합 연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지원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과거에 나뉘어 있던 학과들을 아우르는 융복합 학과들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공학의 융합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반해 인문학의 융복합은 그다지 큰 눈길을 끌지 않는다. (새로운 학과로 나타나는 인문학의 융복합은 내용적 혁신이나 발전을 위한 결단의 결과이기보다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인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공학에 비해 충분한 분화를 이루지 않고 융복합적 특징을 더 많이 가진 탓이다. 물론 인문학도 세부 전공들을 고려하면 첨예한 구분이 가능하고 고도로 전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공학에 비하면 그 분화의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극도로 세분화되었던 자연과학과 공학의 분야들이 융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에 비해 인문학의 융복합은 그다지 새롭게 비춰지지 않는다. 전자공학자와 기계공학자가 융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지만 역사학자와 철학자가 융복합적 연구를 한다면 약간 의아해진다. 이는 역사학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철학적 지식과 관심이 전자공학자에게 요구되는 기계공학적 지식과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와서 인문학이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경우처럼 두 분야의 연구가 합쳐져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분야가 같은 수준에서 융합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이나 그 학문분야가 가지는 인문학적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에 인문학적 통찰을 도입하거나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그 기술의 정치, 사회, 법, 윤리적인 함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융복합의 결과는 인문학과 타학문의 입장에서 약간 다른 성격을 띤다. 인문학의 입장에서 사유와 분석의 대상을 넓힘으로써 일정한 내용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셈이 되지만, 다른 학문이 인문학적 통찰을 만났다고 해서 그 고유의 내용이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의 인식론적 틀에 대한 탐구는 과학철학이라는 융합적 성격의 세부전공으로 이어지지만, 과학철학이 과학 활동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부분은 미미하다. 그 영향은 내용의 변화라기보다 과학함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 설계의 방향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를 공학의 입장에서 융복합적 연구의 결과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과 다른 학문분야가 만났을 때 융복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도 서로 구분되어 있는 학문 분야의 만남 혹은 연결의 확장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이 만나면서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기기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때의 융복합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 2. 융복합 연구의 목적과 기독교 학문

‘융복합과 기독교 학문’은 묘한 주제다. 이 주제가 올해 기독교 학문 연구회의 큰 제목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융복합의 목적이다.

먼저 오늘날 회자되는 융복합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자. 최근 융복합을 중요한 화두로 삼는 입장은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니 기존의 학제간 벽을 허물어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을 내라고 요구한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이유는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지만, 이를 기독교 학문의 이름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려해야 할 바는 융합이라는 화두 자체의 중요성으로 학문세계를 억압하는 분위기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특히 인문학자들은 학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 내야 한다는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나 대기업이 취업후보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운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공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경영과 인문학이 만나야 더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은 제사보다 젓밥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고, 인문학에 반하는 태도다. 나아가 선진국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원시적이고 부도덕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문학을 운운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기독교 학문이 추구해야 할 융복합은 이와는 좀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개별학문으로의 분화를 세상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면, 기독교 학문의 입장에서 융복합의 요구는 자명하다. 어느새 고착된 개별 학문분야의 고유한 언어와 기독교의 치졸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학문 본연의 의무를 추구하는 것이다. 좀 더 총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에 대한 탐구를 수행해야 한다. 분화된 개별학문들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폭넓게 공유하고 융합하는 것은 그 실용적 가치를 떠나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기독교 학문공동체는 이미 이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다. 기독교 학자들은 전공의 배타성이나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학문의 본래적 총체성을 잘 기억하고 있다.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고백이 학문 분야 간의 구분을 넘나드는 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 몇 가지 기독교 학문 공동체의 융복합 사례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학술지 <신앙과 학문>은 인문사회학 융복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sup>1)</sup> 학

---

1) <신앙과 학문>에 이공계 분야의 논문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과 공

술지는 학술 교류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에서 유일하게 철학, 교육, 신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는 가장 융합적인 형태의 학술지이다. 혹자는 이를 여러 분야를 원칙 없이 모으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각 분야의 학자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만나는 계기와 출발점이 된다.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발표되는 오늘의 학회 역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신앙과 학문>에 게재되는 논문들 하나하나가 융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인문사회학 내에서의 융합이 화학적 결합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연구내용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표자가 재직하는 한동대학교도 기독교 학문공동체의 융복합적 특징을 보여준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표방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전공 간의 상호소통을 통한 융복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공, 인문계의 교수들이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다양한 team teaching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들이 동일 주제(통일, 선교,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융합적 성격의 교과목을 개설하기도 한다. 지난 학기에 개설된 “ICT 융합 입문”이라는 교과는 경영학, 철학, 산업공학 전공 교수가 매 수업 시간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융복합 활동도 활발하다. 복수전공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전공간 교류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적극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꾸리는 일은 일상적이다. 결과적으로 교수나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공 간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독교 공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적정기술운동은 또 다른 융복합 연구의 사례이다. 적정기술은 단순한 공학프로젝트라기보다는 국제개발, 경영, 공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분야다. 적정기술은 기독교 학자들의 융복합적 태도와 사유가 일반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례이다. 처음에는 기독교 공학자들이 저개발 국가를 돕는 봉사의 차원에서 시도되었지만, 이제는 공학과 국제개발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지원을 비롯한 국가사업과 대기업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의 주요 아이템이 되어 더 이상 이 흐름을 기독교인의 것이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의 사례들은 융복합적 학문 활동을 명시적인 목표나 모토로 삼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 융복합 활동 자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크게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들에 참여한 대다수의 구성원이 자기 전공에 대한 배타적인 충성심보다는 하나님 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며 중심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날카로운 학문분화의 시대에서도 기독교 학문 공동체는 이미 융복합적이었던 셈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노력과 태도가 오늘날 ‘융복합’이라는 이름을 얻어 새삼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세상이 뒤늦게 융복합을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3. 융복합 추구의 위험

융복합적인 학문 활동이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융복합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융복합적 태도가 더 널리 퍼져 있는 기독교 학문 세계에서는 그 부작용도 더 심하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전문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다. 융복합의 흐름에 회의적인 학자들은 개별 전공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융복합이 과연 적절한지 묻는다. 전공의 구분이 언제나 그렇게 명백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지적은

---

학의 학문적 분화가 더 철저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이공계에서의 융합, 혹은 이공계와 인문학의 융합이 인문사회학의 융합과는 다른 결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전히 타당하다.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부른 융복합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기독교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였다. 전공자끼리의 소통을 통한 융복합이 아닌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견해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교수나 연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문가인 양 의견을 표명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무례하고 부정직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융복합적 학문 활동을 추구할 때에도, 이를 다양한 개별 전공 분야가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직하다.

이와 연관된 또 다른 위험은 반지성주의다. 학문의 목적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신이 믿는 바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안셀름은 우리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앞으로 믿음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지식이나 그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좌악시키는 태도가 기독교 학계에 존재한다. 이는 학문의 탈을 쓴 반지성주의다. 기독교 학문세계의 융복합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존의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각 분야의 전문적 견해에는 아랑곳없이 한 가지 입장을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포퍼의 반증가능성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증가능성을 거부하는 태도에 학문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고백해야 할 것과 증명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신앙과 학문의 양 차원에서 모두 곤란한 문제다. 기독교 학문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학문이어야 학문을 위장한 신앙고백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융복합적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 세간의 흐름과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한 융복합은 자칫 개별 학문 분야의 성과와 통찰을 도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기초과학 연구가 실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인문학적 소양이 취업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학자의 전문성이 선전과 선동의 방편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슬프고 위험하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저열한 인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침묵하는 학계의 모습은 더욱 위태해 보인다.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은 결국 무엇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될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학문적 성취와 전혀 무관한 정치, 경제적 이익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순간, 융복합은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언어적 장치가 되어 버린다.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인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엇이든 해결을 위한 융복합을 강조하는 것과 학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우리 사회의 불행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 4. 기독교 융복합 연구의 방향과 과제

기독교 학문 세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융복합의 본래적인 의미,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측면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서로 다른 분야들이 만나 접점을 찾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오늘날 융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의 실질적인 소통은 미미하다. 개인적인 교류가 학문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소위 ‘먹을 것’이 없으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학자들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다른 분야의 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고 이미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같은 만남과 소통의 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병렬적인 소통에 더하여 구체적인 협업의 노력을 기하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융복합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소통이 학문적인 협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

독교 학자들을 묶어낼 수 있는 주제들은 더 좋은 통신기기, 더 편한 자동차를 위한 융복합, 취업과 창의력을 위한 융복합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할 터이다. 적정기술운동이 점점 악화되는 기술격차와 부적절한 기술원조의 문제를 겨냥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

물론 기존의 실용적인 융복합 문제들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적정기술은 선진국의 기술발전을 배제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술발전의 혜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적정기술을 선진국의 공학도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 학자들의 융복합 노력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당면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혜안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 나가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세계는 총체적인 탐구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학문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융복합적 학문의 추구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의 추구로 재해석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기독교 학문세계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목표의식을 좀 더 뚜렷이 하고 융복합의 자원이 되는 개별학문 분야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며, 자칫 범할 수 있는 반지성주의의 오류를 주의한다면, 좋은 학문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